

# 2026-1 학교현장실습 포토폴리오

-백영고등학교 종교교과 교육실습-



수업명: 학교현장실습

교수명: 성지훈 교수님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0220065 김하솜

실습기간: 2026년 05월 04~29일 (4주간)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학교 소개 및 안내자료

1. 백영고등학교 교육실습 안내
2. 백영고등학교 소개
3. 수업 외 활동
4. 유의사항 및 꿀팁

## III. 수업자료 및 연구수업자료

1. [1차시] 내가 만난 하나님
2. [2차시] 선택, 방향
3. [3차시] 예수님의 cheer up 야외수업

## IV. 수업 관련 각종 자료 및 동영상

1. [1차시] 수업 동영상 자료 링크
2. [2차시] 수업 동영상 자료 링크
3. 수업 BGM 링크

## V. 교과 외 자료

## VI. 김하솜 내러티브

## VII. 교육실습 OT 책자

## VIII. 마무리하며

# I . 들어가며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1학기 5월 한 달간 백영고등학교로 교육실습을 다녀온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2학번 김하솜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후배 학우 여러분께서 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과 실습 과정에서 유용했던 자료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래 제 실습 예정 연도는 2025학년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지만, 교직과 사회복지 복수전공 이수로 인해 5학년까지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학생회 일정으로 인해 실습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 2026학년도 1학기에 실습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실습'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사는 오랫동안 제 꿈이었고, 대학 생활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 시작되었고, 어느새 한 달간의 실습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영고등학교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은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했던 실습 기간이 떠올라 그리움과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걱정과 설렘으로 실습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과 행복으로 그 시간을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실습을 마주할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실습을 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한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후배 학우 여러분의 실습 기간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빛나고 값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습 여정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자료 마지막 장에 있는 제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작은 도움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교생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 Ⅱ . 학교 소개 및 안내자료

## Ⅱ. 학교 소개 및 안내자료

### 1. 백영고등학교 교육실습 안내

#### 1) 교육실습기간 및 인원

- 기간: 2026/5/4(월)-2026/5/29(금) = 4주
- 인원: 12명(모교생 4명+종교교생 8명)

#### 2) 교육실습 일정

주차	실습내용
1주차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생 담당 선생님, 교목실장님, 보건 선생님, 수석 교사님, 학생부 부장님께 연수 받으며 학교에 적응
2주차	본격적인 참관 수업(과목/ 학급 담당 선생님 수업, 다른 선생님 수업 양해 후 가능) *종교 교과외의 경우 2주차 부터 바로 교생의 1차시 수업 실습이 진행됨
3주차	수업 실습 (과목 담당 선생님과 조율, 종교의 경우 2~4주차간 3차시 수업 진행)
4주차	대표 교생의 연구 수업실시 및 실습 마무리 준비 *종교 교과외의 경우 야외수업이 진행됨

#### 3) 실습생 하루일과 및 시간표

시간	일과 내용
08:10- 08:20	10분까지 출근 후 교육실습실에서 하루 일정 및 공지사항 전달받기
08:20- 08:40	학급담임교사의 교무실로 찾아가 선생님을 뵙고 조례참석 혹은 직접 지도
08:40- 09:30	1교시
09:40- 10:30	2교시
10:40- 11:30	3교시
11:40- 12:30	4교시
12:30- 13:40	점심시간
13:40- 14:30	5교시
14:40- 15:30	6교시
15:40- 16:30	7교시
16:30- 17:00	종례지도 및 청소지도 후 퇴근

#### 4) 실습비용

(1) 실습비: 150,000원

=> 실습가기 전, 성결대학교 계좌로 송금하면, 학교에서 기한내로 백영고로 송금

(2) 급식비: 105,910원 (6,230원 X 17일)

=> 대표 교육실습생 계좌로 송금하면, 대표 교생이 모아서 백영고 계좌로 송금

(3) 기타비용: 넉넉히 100,000원 이상 (수업 준비물, 간식) 기타 비용 측정하다 보니 생각한 금액보다 좀 넘게 사용되었어요!

=> 11,000원 / 1차시 수업 활동 재료 (구매: 책갈피 봉투, 폼 보드, 자석)

20,000원 / 도장판 (명찰 끈 28개+ 클로버 스티커 묶음 용)

36,570원 / 간식 (하리보+새콤달콤+솜사탕: 수업용, 도장판용, 등교 지도용)

74,440원 / 학급 아이들 마지막 선물 -> 개인 포장하여 한 명씩 배부

(수제: 단체 사진엽서, 키링, 개인 편지

주문: 각인 컴싸2, 각인 샤프, 클로버 지우개, 인사이드아웃 스티커 엽서)

22,900원 / 학급 담당, 교과 담당 선생님께 마지막 선물

(학급 담당 선생님: 수제 쿠키+ 더치커피 원액 10종 세트+편지)-개인 준비

(종교교과 담당 선생님/ 교생 담당 선생님: 수제 쿠키+롤페)-교생 쌤과 같이 준비

## 2. 백영고등학교 소개

### 1) 담당 선생님

(1) 학급 담당 선생님: 이준석 선생님 (1-7반 담임)

“1학년 7반”

제가 맡게 된 1학년 7반의 학급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학급 담당과 교과 담당 선생님이 일치하도록 학교에서 배정해 주시는데, 종교 교과의 경우 강명구 목사님께서 반을 담임하시지 않으시므로 종교 교생들은 모두 학급 담당과 교과 담당 선생님이 달랐습니다. 이준석 선생님은 사회 과목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준석 선생님께서는 겉으로는 쿨하고 다소 무뎡뎡해 보이실 수 있지만, 늘 따뜻한 눈웃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업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7반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수학 시험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른 시간의 시험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덕분에 학생들이 꾸준히 수학을 공부하고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출근할 때마다 반 학생들이 아침부터 시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백영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만큼 학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풍부하십니다. 실습 중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고 눈치가 보일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여쭙보면 친절하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2) 교과 담당 선생님: 강명구 목사님 (종교교과 담임)

“솔직한 안식처”

강명구 목사님께서 따뜻한 인품과 온화한 성품은 물론, 유쾌한 유머 감각까지 갖추신 분이십니다. 백영고등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목으로 섬기시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진심 어린 관

심과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목실은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고민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 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종교 교생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며 실습 기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늘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간식과 음료를 챙겨 주시며 지친 하루 속에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덕분에 교목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위로와 힘, 그리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 (3) 교생 담당 선생님: 이남선 선생님

“교생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지원군”

오리엔테이션 첫날부터 실습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아침 교생들에게 공지사항과 일정을 전달해 주신 분은 이남선 선생님이십니다. 종교교과 선생님이신 이남선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모습으로 교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교생들과 연구부장님 사이에서 각종 일정과 전달 사항을 조율해 주시며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실습 기간 중 지각, 결석, 조퇴와 같은 상황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연락드려야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생들의 실습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이남선 선생님은 실습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의지했던 선생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실습이 끝나는 순간까지 늘 교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셨고,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덕분에 낯설고 긴장되었던 실습 생활 속에서도 든든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영고등학교에서 실습하게 된다면, 이남선 선생님은 가장 먼저 교생들을 반갑게 맞아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 2) 종교교과 정보

### (1) 차시별 주제 ★★★

차시	주제/ 수업장소
1	내가 만난 하나님 / 교실
2	자유주제 / 교실
3	자유주제 / 야외 (우천 시: 라온광장)

1차시에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데, 주제가 있으면서도 자기소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자유주제 수업이다. 나는 감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감정과 정체성’을 주제로 잡고 스토리텔링 하였고 감정 속 하나님 메시지 구술 활동지와 감정별 말씀 책갈피 활동을 진행하였다.

2차시는 자유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학창 시절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삶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선택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싶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나 목표가 흔들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나의 섬 찾기' 활동지와 하나님 말씀 스티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돌아보고, 그 가치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시는 종교교생 모두가 함께 수업을 구상하여 야외수업을 해야 한다. 일단 학습 장소는 백영 숲길이고, 주제는 예수님의 cheer up 주제로 저희는 백영 숲길의 4개의 코너를 이용해 코너 미션 학습을 진행하였다.

## (2) 수업의 흐름

다음은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습 1주 차에 강명구 목사님께서 지도해주신 수업 전개 방식이다. 실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수업의 흐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마음 열기 (Why) -> 생각 쌓기 (What) -> 생각의 날개 달기 (HOW) -> 삶의 적용 (If)

- 마음 열기: 도입에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야하지만, 그것보다는 '왜' 이 수업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생각 쌓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리는 단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 날개 달기: 그렇다면 그 정답을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가야 할지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 삶의 적용: 마지막에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학생들이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Tip: 마음 열기 단계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구성에 있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 (3) 수업에 관한 Tip ★★★

수업은 다양한 활동 유형과 수업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① 모둠 활동

모둠 활동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수업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일부 학생이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역할을 명확히 나누거나 활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구조화된 모둠 활동이 필요하다. (수업을 기획할 때 해당 반의 자리 배치도를 미리 확보하여 모둠형 수업에 적합한 자리 배치도를 준비한다. 또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시의 쉬는 시간에 모둠 배치도를 화면에 미리 제시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에 원활하게 자리를 이동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② 개별 활동

개별 활동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족해 수업 분위기가 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활동이나 공유 시간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교수·설명 중심 활동

교사 중심의 설명 방식은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학생들의 수동적인 참여로 인해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질문 유도나 짧은 활동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수업 방식에 대한 조언 ★★★

수업 방식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기보다, 수업 목표와 학생들의 수준, 학급 분위기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둠 활동, 개별 활동, 교사 설명 중심 수업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차시 수업을 참관하면서 내가 맡게 될 반의 분위기와 수업 태도 등을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업을 참관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수업을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여러 유형의 형식으로 수업에 적용해 나간 것 같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집중이 분산되거나 수업 외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활용은 보조적인 도구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다. (디지털 사용한다면 각 담당 선생님께 허락을 맡아야 하며 수업 후 반드시 휴대폰 정리까지 책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수업 설계는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수업을 설계할 때는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수업의 형태, 학생들의 참여 방식, 수업 내용의 흐름, 활동지 구성, 그리고 시간 배분까지 전반적인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수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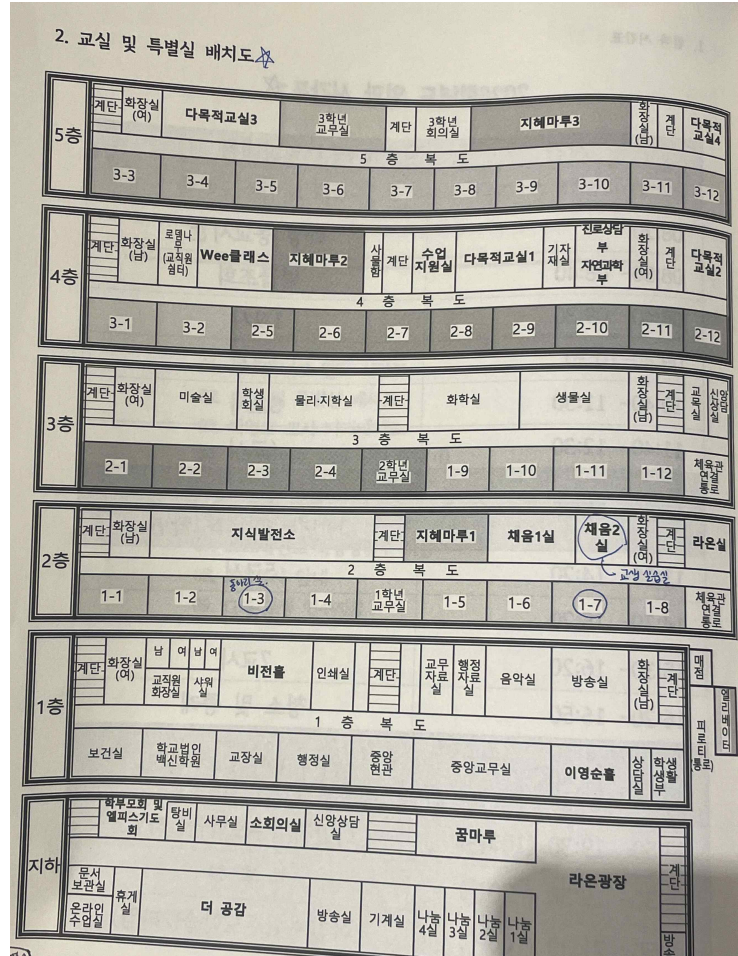
따라서 이후 수업을 준비하는 후배 학우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참고하여, 수업의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운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수업을 설계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종교교과 수업이지만 명칭상 인간과 심리 과목이므로 종교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이 젤 좋다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 (성경구절 제시는 가능하지만,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한 뒤 가능)

ex) 삶 속에서 ~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

한번 같이 봐볼까?

### 3) 교실 배치도



\*교육실습실 장소: 채움 2실

\*야간자율학습 장소: 2층 지혜마루1, 채움1실/ 4층 지혜마루2실

\*점심식사 장소: 새로 생긴 별관 2층 교직원 식당

(별관이 따로 지어졌기에 지하는 이제 사용하지 않음, 2층 연결 다리를 통해 별관으로 이동)

### 3. 수업 외 활동

활동	설명
조례 및 종례지도	<p>담당학급에서 2주차부터 담임선생님께 공지사항을 전달받아 선생님 없이 직접 조/종례를 진행하게 된다.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안내사항을 전달한다.</p> <p>실제 현장에서는 7시 20분부터 아침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오는 아이들도 많아 지쳐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침에 담임선생님께 들려 공지사항을 받은 후 교실에 들어가 인사를 먼저 하고 전달 사항 및 도장판 깨기 공지 후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회를 빨리</p>

	<p>마무리했다.</p> <p>종례 시간에는 먼저 학생들이 책상 위에 의자를 올려 정리한 후 인사를 마치고, 별도의 지연 없이 바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p>
청소지도	<p>종례이후 학생들이 청소를 잘 하는지 지도한다.</p> <p>창틀 잘 닦았는지, 분리수거 확인, 바닥 쓸기, 바닥 닦기 확인하기</p> <p>아이들이 다 가고 창문 닫혀있는지 확인, 에어컨 끄기, 불 끄기</p>
동아리	<p>수요일 789교시에 격주로 동아리 활동과 창체 활동을 진행한다. 동아리 활동은 학급담임선생님이나 교과담당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동아리가 무엇인지 여쭙보고 참여하면 된다.</p> <p>* Tip 1) 강명구 목사님께서 담당하신 동아리는 방송반, 크리스천 리더십 동아리였는데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교생선생님 각각 4명씩 배치하여서 진행하였다. 셋째 주에 크리스천 리더십 동아리는 야외 활동이 있어 백영고 선배가 운영하시는 카페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하며 시간을 보냈음</p>
채플	<p>백영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 예배를 진행한다. 첫째는 '교직원 예배'이며, 수요일 7교시 15시 3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진행된다. 둘째는 '학생 목요 채플'이며, 목요일 7교시에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참석은 자유이다(별관 강당에서 진행되고,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청소와 자습하는 시간을 갖는다).</p> <p>* Tip 1) 종교교과 교생이라면 무조건 교직원 예배에 참석하기 : 선생님들과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간식도 나눠주셔서 좋다!</p> <p>2) 학생 목요채플에서 마지막 주간에 교생 파송 예배 때 특송 부르니 미리 준비하기 : 목사님께서 종교교과 교생단체 특송을 부탁하시기 때문에 특송을 부르거나 워십을 추는 것을 준비해 놓으면 좋다.</p> <p>실제로 교생파송 예배를 교목실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교생 전체가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 설교, 특송+울동 까지 진행되었다. ^3^ (아이들이 매우 좋아함)</p>
스포츠 클럽	<p>점심시간마다 진행되는 반별 스포츠클럽 대항전! 피구(남녀혼성), 축구(남자) 등의 경기가 토너먼트로 진행된다.</p>

	<p>* Tip! 자기 반 경기에는 무조건 참여해서 미친 듯이 응원하기!! (다른 교생선생님들은 아이들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을 준비하셨지만, 실제로 나는 담임선생님께 여쭙어보았을 때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함. =&gt; 꼭 먼저 행동하기 전에 물어보기)</p>
<p>스승의날 준비</p>	<p>실습기간이 대개 5월이므로 반장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담임선생님 스승의 날을 어떻게 챙겨드릴지 구상하고 함께 준비한다.</p> <p>* Tip! 케이크, 롤링페이퍼, 장식 등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에 교생이 돈을 보태는 것은 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과정을 함께 기획하기</p> <p>+ 교생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생들끼리 담당 학급 선생님과 학년별 교무실에 쿠키 돌리려고 했으나 우리의 평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고 하니 주문하지 않기... 실제로 교생대표가 주문했다가 다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 (혹시 모르니 교생 지도 교사한테 먼저 물어보기)</p>
<p>학생상담</p>	<p>학생상담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교생 오티날 부터 지도교사가 상담은 최대한 안하는게 좋으며, 담당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심 그리고 3주차 부터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겹쳐서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교육받음</p> <p>실제로 다른 교생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가 거절 하셔서 만약 하고 싶으면 정중하게 물어보기!</p> <p>저는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상담은 괜찮다고 하셔서 실제로 도장판 안에 있는 상담하기 미션을 활용해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가볍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성과 상담 시 단둘이 있는 공간은 최대한 만들지 않고 야외 혹은 반에서 진행하기!!</p>
<p>개인 및 단체사진 촬영</p>	<p>반 아이들과 '단체사진 찍자!'라고 말하고 학생들과 시간을 조율하여 반에서 쉬는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사진을 찍는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다양한 장소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다.</p> <p>* Tip! 단체사진만 찍지 말고, 꼭 개인 사진도 찍는 게 좋다. + 삼각대 챙기기</p>
<p>마지막 단체선물 준비</p>	<p>실습이 끝나는 금요일 종례시간에는 아이들이 일찍 가야 하는 학생도 있기에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가져와 수업시간에 마지막 인사를 함</p> <p>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미리 구매하고 포장한다. 보통 일주일 전쯤부터 준비하는데, 선물을 어떤 것을 줄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비용으로 구매할 것인지 등을 미리 짜두면 좋다. (실제로 급하게 준비하면 배송 문제도 있어 최소한 일주일 전 평일에 구매하기)</p> <p>* Tip! 1) 베베누토 사이트를 활용해서 각인 필기구 준비하면 좋음 (+톡톡전송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 이름 각자 새겨주는</p>

	<p>걸로 주문하면 더 좋음)  ex: 00이의 모든 순간이 빛나길 -솜쌤-  언제나 00를 응원해 ♥솜T♥</p> <p>2) 다이소를 적극 활용하기 (포장 봉투)</p> <p>3) 직접 사진엽서, 편지지를 제작해 주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돈은 아낄 수 있음</p> <p>4) 학교에서 야근하기  : 집에서 포장해서 오면 부피가 많이 차지하기에 학교에  선물들을 다 가져와서 교생실에서 야근하며 포장하면 좋다.</p> <p>5)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 선물  : 담임선생님 선물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주문하는 것이  훨씬 싸다 (추천: 일랑더치 커피 세트 or 비타민) 또 교과  선생님 선물은 교생 다같이 준비하는 걸 추천  (저는 쿠키했습니다^^)</p>
--	--

**4. 유의사항 및 꿀팁 ★★★**

백영고등학교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옷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오티 교육날에도 정장 추천함

1) 복장: 세미정장.

- 치마, 바지 상관없이 모두 입는 것 가능하지만 너무 짧은 치마나 비치는 상의 불가능.
- 기본적으로 정장 마이 구매할 것, 더울 땀 슬랙스와 블라우스만 입어도 상관없음.  
(너무 비치는 흰색 옷은 조심하기, 딱 붙는 옷도 주의)
- 실내용 교사 신발을 쿠팡에서 착용해서 신는 것을 권장 드림  
(아마 교생담당 선생님께서 공지해주실 것임)

2)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사라졌으며, 스포츠클럽으로 대체되었음

3) 출근부: 출근부가 필요한 학교는 미리 실습담당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함!  
(아침에 교생 실습실 와서 출근부 싸인 했음.)

4) 학생정보보호: 학생들 전화번호는 정보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주지 않음.  
(실습생 본인의 전화번호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공유 가능하지만 교생  
담당 선생님께서 싫어하시고, 추천하지 않음)

5) 인사: 선생님, 청소부 아주머님, 영양사님, 학생들, 동료교생 모두에게 착실히 인사!

6)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형성은 성공적인 실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교생이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교사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갈 때 학생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교사를 신뢰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꾸준히 인사를 건네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지나치게 친구처럼 행동하거나 반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존중하는 태도와 교사로서 적절한 언어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 또한 매우 값지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 주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그 마음은 분명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교사로서의 보람과 행복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7) 교생 실습생으로서의 자세

교육실습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실함'과 '책임감'이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대학교를 대표하는 예비교사로 학교 현장에 나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지각이나 시간 약속을 소홀히 하는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맡은 업무와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습 기간 동안 종교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작은 일이라도 대충 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태도와 모습 하나하나가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의 이미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습생은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나지만, 동시에 현직 선생님들과 학교 현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학습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선생님들의 조언과 경험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동료 교생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학교와 전공,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예비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험은 흔치 않은 기회이다. 교육실습은 교직 생활의 첫걸음이자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료 교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교생으로서의 한 달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늘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동료 교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실습에 임한다면 분명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Ⅲ. 수업자료 및 연구수업자료

# IV. 수업 관련 각종 자료 및 동영상

## IV. 수업 관련 각종 자료 및 동영상

### 1. [1차시] 수업 동영상 자료 링크

- 1) 브로콜리응 처음 만난 감정들과 라일리의 반응

[https://youtu.be/NoEM\\_pGsv5Q?si=nZXoa\\_m-3I8Vlv0x](https://youtu.be/NoEM_pGsv5Q?si=nZXoa_m-3I8Vlv0x)

### 2. [2차시] 수업 동영상 자료 링크

- 1) 라일리의 섬 소개

<https://youtu.be/LIXXeBorhwo?si=JdfrzzlX80sICPPn>

- 2) 라일리의 무너지는 섬

[https://youtu.be/kH86Df2bpyg?si=PG5Cif\\_s7JMwhvC0](https://youtu.be/kH86Df2bpyg?si=PG5Cif_s7JMwhvC0)

### 3. 수업 BGM 링크

- 1) 찬양- 봄날의 햇살처럼 산뜻한 재즈 (활동할 때)

<https://youtu.be/ogTQsVYQEb0?si=qlwihP9Qu9Kfp9o->


\* 영상은 아이패드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하거나 유튜브 추출을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수업할 땐 링크로 들어가기보다 미리 따로 저장한 음원과 영상을 PPT에 첨부해 놓고 바로 틀 수 있도록 한다(인터넷 연결의 불안정함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실제로 저는 인사이드아웃 영상 장면을 한국어 버전으로 구매하였으며 화면 녹화를 통해 영상 본을 따놓고 사용했습니다. 수업 2차시 라일리의 무너지는 섬에 관한 영상은 영화의 전체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컷 편집을 하여 요약본 영상을 만들었음. 그리고 ppt에 영상을 첨부했어도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USB에 원본 영상도 넣어두면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 V. 교과 외 자료

## V. 교과 외 자료







### 1. 1-7반 설문지 (1주차 때 학생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 친해지기 위해 준비함)




# 1학년 7반을 알려줘~!

 이름: \_\_\_\_\_

소중한 1학년 7반 친구들, 안녕 :) 하쌤이야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건 쌤에게 정말 큰 행운이야.  
그래서 함께하는 4주 동안 서로에게 행복과 행운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클로버'라고 불러보려고 해요.  
이 설문은 1학년 7반 한 명 한 명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준비했으니  
편하게, 솔직하게 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해, 나의 클로버들 🍀

 <p>저의 MBTI는요!</p>	 <p>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성격, 외적 특징, 종교, 장점)</p>	 <p>저는 <input type="checkbox"/> 천천히 다가오는게 좋아요 <input type="checkbox"/> 빨리 다가와도 괜찮아요 기타:</p>
 <p>요즘 저의 관심사는요!</p>	 <p>저의 인생은 목표는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하쌤 선생님께서 궁금한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li> <li>• 하쌤 선생님과 한달동안 하고 싶은 게 있어요!</li></ul>



## 2.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도장판 깨기 활동

(저는 2주차 때 진행하였으며 명찰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목에 걸 수 있도록 만들었음 실제로 도장판 앞면에는 이름, 뒷면에는 미션들을 적어놓아서 하루에 2개씩 미션 수행할 수 있으며, 4주 동안 미션을 다 깬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의 이름에 숨이 들어간 솜사탕을 주면서 선생님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진행하였음)



미션 수행하면 그 자리에 클로버 스티커를 붙여주었음.

3. 야간자기주도학습 감독 매뉴얼

**야간자기주도학습 안전관리교사 매뉴얼(2026)**

시 간	감 독 요 령
16:50~ 17:40	2, 3, 4, 5층 순회
17:45	학생들 착석 완료 지도 및 확인
17:50	자기주도학습 시작
17:50~ 19:30	1타임(100분) 출석을 리로에서 체크 (학생 위치, 이름 정확하게 확인) 수시로 순회 지도를 하며 조는 학생들을 깨우기
19:30~ 19:50	휴식(20분)
19:45	학생들 착석 완료 지도 및 확인
19:50	자기주도학습 시작
19:50~ 21:30	2타임(100분) 출석을 리로에서 체크(학생 위치, 이름 정확하게 확인) 수시로 순회 지도를 하며 조는 학생들을 깨우기 <b>*21:00경 리로 문자 발송</b>
21:25	자습 종료(21:25) 직전부터 타종까지는 반드시 순회하 며 학생들이 미리 가방을 싸지 않도록 지도
21:30	자기주도학습 종료 자습실 및 교실 소등 확인 (자는 학생 없는지 꼭 확인!) 1층 로비에서 퇴근 지문 인식 후 퇴근

#### 4. 목요일 학생 예배



#### 5. 교생 선생님들과 단체 사진





6. 학생 스포츠클럽



7. 마지막 선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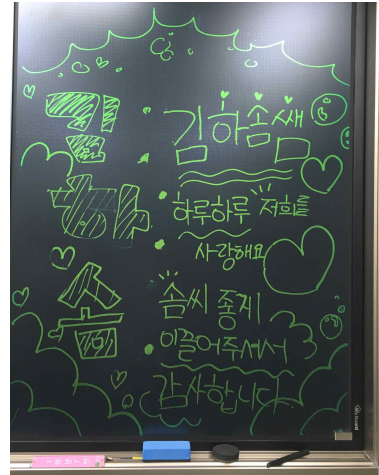


## Ⅵ. 김하솜 내러티브

## Ⅶ. 교육실습 OT 책자

## VIII. 마무리하며

## Ⅷ. 마무리하며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2026년 5월은 오랫동안 꿈꿔 왔던 버킷리스트이자,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이루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생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학년 7반 클로버들, 수업에 함께해 준 1학년 친구들, 그리고 백영고등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행복한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통해 일하시고, 실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셨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실습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학우 여러분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은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습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실습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실습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실습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후배 학우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후배 학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육실습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비 교생 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김하숨 드림

e-mail: hasom1114@naver.com

phone number: 010-5632-7664